

숲 정 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 11, 28)

연중 제14주일

제 1 독서 : 즈가 9, 9-10
제 2 독서 : 로마 8, 9, 11-13
복 음 : 마태 11, 25-30

강론

소리

“예수는 멋진 분”

양석현 신부 / 상관천주교회

어느 교수신부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신학교에서 면접을 치루는데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수험생들에게 던졌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참하느님이며 참사람이십니다’ 등등. 신학적으로 생각해볼 때, 마땅하고 옳은 대답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해주었는데 어떤 수험생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다. ‘예수는 멋진 분이십니다’ 신학적인 사고를 떠나서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대답이다.

‘예수는 멋진 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말은 그분께 어쩌면 그렇게 잘 어울리는 표현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명답 중 명답같다. 도대체 예수의 어떤 면이 그렇게 멋진가? 그분은 워낙 다방면에 팔방미인이라 하나를 꼭 집어 말한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겠지만 나는 그 중에 하나로 이런 것을 생각해보았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가능케 하시고, 능력의 끝점, 가능성의 끝점에 도달한 그 순간에 그분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이 중에 하나일 것이다. 거의 모두가 배움이 없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통해 놀라운 것을 드러내고 계신다. 때문에 예수께서는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보고 기쁨에 넘쳐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른다.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안다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을까? 아마 지구에 비유한다면 한줌의 흙에 지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미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너머에 펼쳐진 하느님의 무한함을 느끼게 되고 그분의 위대함을 찬미할 수 있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작은 탈랄트(재능)를 하느님께 의탁하여 사용할 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72제자들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망루지기”

오죽하면 소방서 망루지기도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이 생겨났겠는가(밤낮없이 높은 망루에 앉아 있다 보니 저 밑에 무허가 건물 짓는 것에 보리 막걸리 값을 뜯어냈다는 우리들의 슬픈이야기지만).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이 어디 소방서 망루지기뿐인가. 도지사 어른이나 철도청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따지고 보면 망루지기에 다름아니다.

진짜 망루지기가 되셔야 할 분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쇠고랑찬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섰다. 어디 나뿐이더냐 하는 얼굴로. 그래서 유난히도 긴 장마비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적신다.

진짜 망루지기는 어디에 있는가?

밤을 새워 새벽을 기다리는 진짜 파수꾼은 詩篇 안에나 있는 사람인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그것도 쇠고랑찬 사람들 가운데 있다. 장마 속에 빛나는 한줄기 밝은 햇살처럼 그렇게 서 있다.

이문옥 감사관.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가 찾는 진짜 망루지기는 거기에 그렇게 서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世上事 다 그런 것 아니더냐고 말해도 아니더라고 단호히 말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쇠고랑은 벌써 쇠고랑이 아니라 復活의 십자가로 빛나고 있는 것이다.

술제니친은 말했다. 조직화되고 거대한 부정과 불의, 암흑을 이기는 가장 명확하고도 확실한 길은 나와 내 주변에서부터 그것을 없애는 것뿐이라고... [이]

숲정이 산책



“동양화학 T.D.I. 군산공장 철거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즈음하여”

1.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1, 31)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 창조된 그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기에 아름답다고 감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느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그 목적과 기능은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땅을 지배하라”(1, 28)였습니다. 즉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계속 보존해야 하고, 또 생명을 위해서 땅을 지배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땅을 지배한다는 것은 주어진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집’으로 잘 보존하여 모두가 모든 시대를 거쳐 다같이 살 수 있는 삶의 터로 가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세상은 생명의 집으로써 하느님이 주신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여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교회는 ‘세상을 생명의 집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날 인류가 심각하게 직면한 공해문제를 거듭 경고하여 왔습니다. 세상은 이미 과학적 발견과 기술적 발명과 경제적 목적에만 이용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생태계의 파괴라는 파멸과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을 지배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이 분명히 파괴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에의 봉사를 위한 것”(어머니와 교사, 197항)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연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마음대로 착취하였던 결과였습니다. 이에 교회는 인간이 자연에 대한 “하느님의 규율에 복종하기를 거절할 적에는 자연도 인간에게 거역하고 그를 더 이상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사회적 관심, 30항)이라고 경고하며, 공해에 의한 생명의 파괴를 죄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우리는 이러한 성서적인 요청과 교회의 가르침을 성찰하면서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동양화학의 T.D.I. 군산공장 철거문제’를 주시하여 왔습니다. 먼저 이 공장은 가공할 포스젠 독가스를 원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스젠은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백만명을 학살한 화학무기 원료로 사용된 독가스이고, 이미 환경청에서도 독극물로 지정한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포스젠을 원료로 하는 이 공장이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환경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없이 유지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욱이 인구가 밀집된 군산시에서 불과 1.5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건설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동양화학 측은 공해방지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100% 위험방지를 장담하지만, 이는 불완전한 기술에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맡기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불행하게도 가스가 폭발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반경 40km내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점에서 그 참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해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이 완벽하다고 거듭 주장하였던 이 공장에서 지난 6월 5일 기화된 염산이 누출되어 바로 옆에 있던 우민주철의 노동자들의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면서 구토 증세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안전도를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 이에 우리는 ‘동양화학의 T.D.I. 군산공장’이 경제적 이익만을 도모한 나머지 하느님이 주신 생명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옥지역의 모든 가족에게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리스도교인들은 이같은 새로운 전망에 관심을 모으고 이제 공동체의 운명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 다른 사람들과 책임을 나눠야 하겠다”(80주년을 맞이하여, 21항)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공동선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의식하고 있고…건강한 환경의 회복과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름받고 있다”(세계평화의 날 교황 담화문, 15항)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공장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인간에게 명하신 자연 질서규율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이며, 그 결과는 무서운 참사로 이어지는 징벌을 초래한다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온 땅을 지배하라”는 하느님 명령의 본질적인 의미를 직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발전과 개발을 위해 이 공장이 인구가 밀집된 군산에서가 아니라 무인도에도 철거할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호소가 관철되도록 군옥지역 신자는 물론 지역의 전주 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함을 선언합니다.

1990. 7. 1.

천주교 전주교구 군옥지구 사목협의회

하모니 피아노 교습소

최 귀 자 (세레나)

인후 2단지 금성교회 옆

☎5-2484

삼성전자 역전대리점

(공무원 연금가 판매)

대표 김 태 권 (스테파노)

윤 춘 자 (마 리 아)

☎72-4663

인후동 인후2단지APT와 역전로터라중진

양재 · 한복 · 홈패션

노라노 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앞 · 민정당사영

☎86-2715

동인당중국한의원

원장 조 총 례 (가브리엘)

☎87-8093

인후동 2단지

동인당중국한의원

보건소

잡 관 /

“남이 나로 인해 범한 죄 있을 것이나...”

어느 주일미사에 날씬한 몸매의 예쁜 아가씨가 참례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깊게 파인 어깨선, 짧은 치마, 맨살의 하얀 허벅지, 쪽 뺨은 다리 곡선에 가늘게 걸친 선들이 정말 매혹적이었다. 미사를 마치고 성당문 앞을 나서자 머리칼이 허연 노사제는 의미있는 미소를 지으시며 예쁜 선물을 하나 선사하셨다. 그러자 그 여인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어쩔 줄을 모르다가 얼굴을 감싸고 성당문을 뛰쳐 나갔다. 그 선물은 빨간 사과 한 개였다.

하와의 유혹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성당 안에서까지. 비록 고의는 아닐지라도 과다한 노출은 남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하와의 사과가 아담의 운명을 그토록 비참하게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아직은 가난한 성당들이라 시원한 에어컨 시설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혼자만 더운 것은 아니잖는가? 옷차림에 조심해야겠다. 나의 옷차림 때문에 주위 형제가 분심 중에 미사를 봉헌한다면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인가? 우리 인간은 때와 장소에 따라 옷을 골라 입는 지혜를 키워왔다. 일할 때는 일복, 잠잘 때는 잠옷, 수영할 때는 수영복, 등산할 때는 등산복을 입을 줄 안다. 성당에 올 때 또한 이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이는 곧 그의 마음의 표현이다. 복속계하게하고야 제사를 지냈던. 우리 선조들의 습관을 저버릴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와 남이 나로 인해 범한 죄 있을 것이니, 신부는 도무지 나를 벌하고 사하소서” 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할머니의 고해경문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다.

교 구 소 식

엄마들을 위한 영화 “에마논” 상영 : 9 일 (월) 오후 3 시
장소 - 가톨릭센터, 회비 - 1,000 원

1. 축! 건진 : 고산 성당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2. 사제 총회 및 교구 사목협의회 결성 : 7월 10일 (화) 오전 10시 30분 천호 피정의 집
3. M. B. W 교구대회 : 7월 17일 (화) 오전 9시 30분 해성학교 윤호관
4. 초등부 · 중고등부 교리교사 하계 연수회를 잘 마쳤습니다.
5. 고 전미카엘 신부님 추모사업 모임 : 7월 12일 (목) 오후 8시 가톨릭센터 휴게실 72-82년까지 활동하신 J.O.C. 선배님들은 꼭 참석바람.
6. 휘플라레 모임 : 7월 15일 오후 2시 30분 가톨릭센터 대상-고등학생 · 일반 미혼 및 기혼
7. 남원 제2분당 (도통동 분당) 설립 : ① 인계 인수 : 7월 12일 오전 10시 ② 도통동 분당 설립일 : 7월 15일 (주일) 비고 : 도통동 분당 유영도 신부님은 임시 사제관으로 쌍교동 분당 사제관에서 고경훈 신부님과 함께 기거하시게 됩니다.
8.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성소피정 : 7월 15일 오후 3시 - 17일 오후 3시 수원본원 (0331) 46-0241 회비 5,000원
9. 천주의 성요한수도회 성소자 모임 : 7월 15일 오후 2시 광주 (062) 54-0041
10. 축! 영명 : 11일 (성베네딕도) 박성운, 김반석, 김병운, 김용태, 현유복, 권이복, 유영도, 양경배, 정천봉, 이명재 신부님 축하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서로가 서로를 위해 -

짜증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중식 후의 양치질이나 세면은 입냄새 제거와 수면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서로의 활력을 위해 청결을 유지합시다.

검 도

방학 초보자 특강 (1개월 완성)

1. 정신집중으로 허약체질 개선 및 학력신장
 2. 예절교육으로 목적의식 고취 및 자신감 향상
- 남여 국교생 30명 (선착순), 중고생 40명 (선착순)
대학 일반 30명 (선착순)
문의처 : 화랑관 (효자동 85-2264), 세심관 (전북의대입구 72-8009)
연수원 강사 역임, 전. 국가대표 선수, 현. 대학강사
김민철태시 (태경)

아남전기/칼라 TV/오디오

아 남 전 기

전북 농협 영업소
※ 운전 및 설치 기사모집 연령제한 없음
김태진 (비오), 김옥희 (안나)
☎ 75-7770
(적십자혈액원 옆)

심이 (883) 김병오



사무장채용

제출서류 : ① 자필이력서 1통
② 분당신부추천서 1통
자격 : ① 고품이 상남자
② 병역필 (면제자포함)
③ 운전면허 소지자우대
서류제출 마감일 : 14일 (토) 까지

동산천주교회

☎ 74-4614, 76-1289, 77-4212

우 리 경 두

박 성 환 (즈기리아)
김 명 숙 (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
(중앙성당 옆)
☎ 85-8848

한 국 기 원

개업일시 6월 30일
◀ 이창호 스승, 이정옥 5단과
전라일보 해설자 이인 5단의
바둑교실 개강 ▶
대표 김광국·오사비나
☎ 84-8094
광동로 시거리 광동약국 3층

임정골한의원

원 장 임 의 성 (스테파노)
간호사 정 성 옥 (테레사)
☎ 3-2403, 445-2403
척추교정 및 디스크상당
(군산) 국도극장 뒤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 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희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남

1. 세례 대상자 면접: 11일 오전10~12시 오후3시~저녁까지
 2. 통신교리 수료자 면접: 13일, 저녁7시부터(수료증 지참요)
 3. 학생예비자 면접: 15일 오전9시(부모승락서 및 동반할 것)
 4. 10월어머니미사(사제총회 관계로): 오전9시30분, 미사 후 L.M.
 5. 사목회 상임위원회: 12일, 저녁8시(최만석대)
 6. 모임: • 자모회-공식미사 후 • 꾸리아-오늘 오후2시 • 부녀회 상임위원회-10일, 어머니미사 후 • 성령기도회-12일, 저녁7시30분.
 7. 금주 청소구역: 중노2가9, 10번, 차주 청소구역: 중노2가 11, 12번.
 8. 여학생정학교 유니폼 580원(1,296,000원) 은인을 구입합니다.
 9.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물적 축하예물: 3,445,000(공소신축원 금으로) 10. 송재규 씨-넉50마리, 공소신자-음료수 제공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961,230원 ☐ 교무금: 520,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1. 첫영성체: 오늘 공식미사.
 2. 축! 영명: 유엘리사벳 원장수녀님 오늘.
 3. 꾸리아: 오늘 오후2시.
 4.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 후.
 5. 자모회: 12일 오전10시.
 6. 안나회: 12일 오전10시.
 7. 여성분과회: 14일 오전10시.
 8. 성우회, 요셉회, 대건회, 단합대회: 15일 장소- 구이 성덕부락
 9. 주일학교 성경학교: 7월23~28일 전신자 적극 협조바랍니다.
 금주 전례: 해설-최옥남 독서①황선주 ②송경숙
 봉헌-황선주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황선주 ①안철조 ②유경순
 봉헌-안철조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01,200원 ☐ 교무금: 837,55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1. 성가집회, 청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성경읽기: 호세아1장~14장.
 3. 금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강덕용 ②김순이
 봉헌-한봉용, 이완봉
 차주 전례: 해설-송봉덕 독서①김봉길 ②구영순
 봉헌-오철규, 하태중
 4. 오늘은 성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대축일
 ☐ 지난주 봉헌금: 224,490원 ☐ 교무금: 158,500
 ☐ 2차헌금: 88,88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오늘은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대축일!
 1. 회의: ①반장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프란치스코3회-오늘 오후2시 ③성심회-7월13일(금) 오후2시.
 2. 모임: ①울뜨레아-7월11일(수) 오후8시
 3. 알림: ①예비자를 인도합니다. - 교리시간 매주일 공식미사 후(성인반) 매주일 오전9시(중고학생반) ②건진자-기녀사진 찾아주세요(사무실) ③분실을 찾아가주세요(사무실).
 ☐ 지난주 봉헌금: 548,850원 ☐ 교무금: 197,000원

*** 용머리** 사제관 84-8123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1. 공병 수집: 각종병을 수집하오니 많이 협조바랍니다.
 2. 꽃 봉헌회모임: 7월13일(금) 오후3시 많이 참석해 주세요.
 3. 구역장, 반장모임: 공식미사후.
 4. 베르니카회 모임: 공식미사후.
 5. 울뜨레아 모임: 공식미사후.
 6. 청소년사: 서완산동1가 동원
 신축헌금: 21,674,000원 입금: 11,840,000원
 ☐ 지난주 봉헌금: 379,820원 ☐ 교무금: 702,000원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종충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전동**

※ 성전보수비 현금바람 * 주일금 배가운동에 협조 바람.
 1.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구역봉사자 모임: 오늘 저녁7시 30분.
 3. 축하합니다: 첫영성체를 받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오늘 3시 미사후.
 4. 반기도회: 10일~13일(각 구역, 반별로실시 적극적인 참여요)
 5. 유아세례: 14일(토) 오후3시. 6. 반장 및 구역봉사자 재임명: 경원동 반장-오남례, 봉사자-김정택 • 전동1반 봉사자-방준철 • 전동3반-최병래 • 풍남동7반-김성동 • 남노송동4반-김평신 • 동교동3반-김윤배 • 동교동6반-이영순(수고하시겠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351,990원
 * 금주 보수비 신일액: 100,000 * 금주 보수비 현금액: 531,000 * 현재 신일 총액: 218,531,399 * 현재 모금 총액: 144,522,15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박병준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환

※ 국악미사를 위한 연습: 매주 화, 수, 목, 금요일 오후2시-회당하는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첫영성체 교리: 20일까지, 첫영성체식-21일(토)
 1. 제대회: 공식미사 후. 2.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청년회: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4. 예비자 받아들이는 예식: 15일(일) 오전10시15분 * 각 구역장, 심신단체장, 사목회부장, 차장, 공소회장님 참여바랍니다.
 5. 금주 전례: 김광탁 복사-이봉연, 박병환.
 봉헌-신영배 부부
 차주전례: 박연희 복사-권 춘, 서영상
 봉헌-신규원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59,280원 ☐ 교무금: 299,500원
 ☐ 교황주일 2차헌금: 142,770원

*** 화산동** 사제관 87-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87-9842 사목회장 박영근

1. 첫영성체교리: 9일(월)부터 21일까지(매일 오후5시).
 2. 유아세례: 13일(금) 오전9시30분 세례신청서를 사무실에 작성 해주십시오.
 3. 금주 전례: 해설-최경순 독서-구양수, 권미숙
 차주 전례: 해설-한병갑 독서-신정균, 김혜화

본당 83-3841 사무실 84-0915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 81-0050 수녀원 84-4804 보좌신부 김태환
 사목회장 황수석

*** 효자동**

1. 유아세례: 오늘 오후5시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2. 감사: 김도마 신부님 영명 축일에 영적, 물적 예를 봉헌해주신 분들께. 3. 구역 봉사자들 미리내 성지순례 잘 다녀옴(7,4)
 4. 구역미사: 목-상산고부근(1,2반) 송정APT 금-상산고부근(3,4반) 하그마 * 시간: 오후4시.
 5. 평일미사와 성체조배, 일상기도에 힘써주세요.
 6. 모임안내: ①울뜨레아-오늘11시 미사후 ②모니카회, 테레사회-다음주 수요일 10:30
 7. 교황주일 2차헌금-305,000원
 8. 청소년사구역: 삼천주공3단지 성당부근 효동마을
 ☐ 지난주 봉헌금: 894,380원 ☐ 교무금: 1,595,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창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홍두

1. 건진성사와 효도관광에 협조하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2. 울뜨레아: 공식미사 후
 3. 성모회: 13(금) 어머니미사 후
 4. 독배공소미사: 13(금) 오후 2:00 오후 8:30 이서공소
 5. 중고생 피정: 22일~24일 매일 오후 2시부터, 중고생 하계 수련회: 25~28일: 부안군 변산면 오정 국민학교
 ※ 중고등 학생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6. 변경된 전화번호: 반회장 통해 사무실에 접수 요망.
 차주 모임: 사목회, 새벽회
 금주 전례 해설: 박명래 독서①유병환②김성자
 기도-채의병, 박육선
 차주 전례 해설: 강진상 독서①김인수②이병희
 기도-양해인, 공순자
 ☐ 지난주 봉헌금: 935,480원 ☐ 교무금: 1,001,000원